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alibrite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calibrite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겟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겟
3. 그레이 밸런스 타겟
4. 화이트 밸런스 타겟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우리 사진인들의 수십 년 숙원이었던 '사진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단순한 법제정을 넘어 대한민국 사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기념비적인 쾌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진 서비스업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핵심 문화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고한 법적 토대 위에 여러분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권익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시행령 마련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유래없는 더위와 녹록치 않은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사진촬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협회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창의 시원한 바람 속에,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우리는 대관령의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평창 ‘모나 용평’에서 다시 한 번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는 법 제정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술적, 예술적 지향 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AI 기술의 진화와 시각 매체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프로 사진가들이
 갖추어야 할 차세대 전문 교육과 풍성한 기자재 전시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잠시 무더위를 잊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애송하셨던 이 문장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진 한 장에 담긴 촬영자의 깊은 ‘진심’과 살아 숨 쉬는 ‘혼’입니다.

사진 예술과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거센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지라도, 깨어있는 조직과 진정한 예술가는 역풍이 불 때 비로소 더 높이 날아오르며 그 생명력을 증명해 냅니다. 현실의 거센 변화와 여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해 나가는 회원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사진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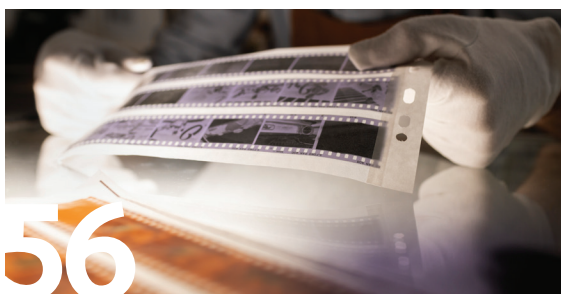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자리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며,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모든 회원님의 가정과 일터에 늘 ‘행복’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초점이 선명하게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제40대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 경 희 올림



Contents

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
Magazine



권 두 언

04 이경희 회장

K P P A 소 식

08 2026(사)한국프로사진협회 2차 이사회

10 제41대 회장, 감사 선거 공고

11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안내

12 제41대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13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강좌 안내

15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진흥법 간담회

17 공정위·소비자원 현장간담회

18 소상공인 결의대회 & 환경사진 간담회

K P P A 인 상 사 진

20 박용호작가

22 박응태 작가

23 이정휘 작가

24 최병희 작가

K P P A 지 회 · 지 부 소 식

26 2026 서울특별시지회 세미나 盛了

27 2026 인천지회 2차 임원 회의

28 2026 부산광역시지회 부산포토펬스티벌 成了

29 제28회 울산광역시지회 연수대회 盛了

30 2026 대구광역시지회 하계연수대회 盛了

31 2026 경상북도지회 연수대회 盛了

32 제46회 경남지회 하계연수대회 盛了

33 제20회 호남권 연수대회 및 촬영대회 盛了

35 제21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盛了

K P P A 농 수 산 물 소 개

- 38 정태영 부회장 샤인머스켓 이야기
40 여수 갯김치, 건강한 식문화 정착

K P P A 풍 경 사 진

- 44 김갑수 작가
45 김현호 작가
46 서현호 작가
47 이용일 작가
48 이희춘 작가
49 임병학 작가
50 정세화 작가

K P P A 교 육

- 52 좋은 카메라보다, 멈추지 않는 카메라
54 Photoshop(헤어컬러 체인지)
56 사진관 영업이 어렵다고?
58 선배님의 사진, AI로 되살리다
60 검색이 안 되면 손님도 없다
61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한 90년의 그리움

K P P A 타 임 머 신

- 62 연수대회 70년의 역사

편 집 후 기

- 66 원고모집 및 쿼즈



ABOUT THE COVER

작품제목 나를 울리던 시간

작가노트 나는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해온
음악과 나 자신을 한 프레임에 담고 싶었다.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감정을 대신 울려온 또 하나의 나였다.
이 사진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조용히 쌓여온 시간의 초상이다.



박용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고문
現 파스텔스튜디오 대표



寫壇

2026. 7. VOL. 582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주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대표번호 02-4545-600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 kppa1955 / PW 1234)
계좌번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발행인 이경희 회장
발행일 2026년 7월
창간일 1977년 9월 /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편집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김용우 홍보위원
인쇄·디자인 (주)미디어파낸피 02-903-2773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 사진 및 기타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wearing a dark suit and a blue shirt, is speaking at a wooden podium. He is holding a microphone in his right hand and has his left hand on the podium. Behind him is a white wall with a framed document and a flag. The text '다명균 기획위원장 제안설명' is overlaid at the bottom of the image.

소통과 혁신으로 문을 연 이사회

취임 100일을 앞둔 이경희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는 재적 이사 38명 중 30명이 참여하며 성원되었다. 이경희 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그간 지방을 순회하며 회원들과 직접 소통했던 소회를 전하고, 전자 회의록 승인과 국제 세미나 준비라는 두 가지 굵직한 의안을 두고 밀도 높은 대화가 이어졌다.



홍상표 재무위원장
제안설명

투명성 강화와 '안전' 중심의 조직 개편

협회는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이번 세미나는 예산을 1억 4,85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서비스와 함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안전관리부'의 신설이었다. 대회 기간 중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무결점 세미나의 중요성을 전 회원이 공감하면서 각자가 안전관리원의 역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부회장을 중심으로 전담 부서에서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봉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규석 대외협력위원장
의견개진

SI 교육 도입과 지회 상생으로 그리는 미래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교육 혁신이 눈에 띄며,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SI 교육을 위해 별도 강의실을 마련하고 유명 인플루언서 강사를 발 빠르게 섭외했다. 신규 자격증 과정 편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협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회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2종의 자격증 과정 교육 시행이 결정되었다.



이영진 교육자격위원장
제안설명



박수만 이사 의견개진



집행부 회의



이규소 대외협력이사 인준장

여기에 기자재 업체의 참여율이 90%를 넘어서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고, 전국 16개 지회의 수익을 돕기 위한 '특산물 장터'도 함께 열려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1억 4,850만 원 규모로 짜인 이번 세미나는 참가비에 걸맞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출 총회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제41대 회장, 감사 선거 공고문

정관 제1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2026년 8월 25일 회장, 감사 선출 총회 시 실시할 제41대 임원선거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 : 2026년 8월 25일 (09시)

2. 장소 : 평창 용평리조트(국제세미나 장소)

3. 선출할 임원 : 회장 1인, 감사 2인

4. 회장 입후보자 등록

가. 등록마감 일시 : 2026년 07월 23일(목) 17:00

나. 등록서류 접수 : 협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다. 등록서류 제출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정의 서류를 사무처(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반드시 후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또한 마감일까지 사무처에 도착하여야 한다.

라. 등록신청 양식 교부 : 협회 사무처에서 배부

마. 회장 입후보자 자격(선거관리규정 제5조)

① 회장 출마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년도 1월1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본회 임원을 2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만료 예정자로서 지회장, 지부장 또는 협회 감사를 4년 이상 역임한 자

나. 본회 임원을 4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4년 만료 예정자로서 지회장, 지부장 또는 협회 감사를 2년 이상 역임한 자

다. 본회 임원을 6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 임기 6년 만료 예정자

2. 주무부장관의 임원 승인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등록자 구비서류(선거관리규정 제6조)

① 후보신청서 1부(별지 양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이력서 1통(본 협회 경력사항 필히 기재)

⑤ 사진 파일(주민등록증용)

⑥ 후보자를 대의원에게 알릴 선거공보 원고(사진, 성명, 경력, 소견을 포함하여 A4용지 4면 이내) 1부-인쇄할 수 있는 pdf파일

⑦ 선거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별지 양식)

⑧ 선거등록비 납부는 수표 또는 지정계좌 입금확인서

⑨ 선거관리규정 제6조 ③항에 의거 회장후보로 등록할 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등록비 명목으로 3,000만원, 감사는 200만원 입금하여야 한다.

* (사)한국프로사진협회(선거관리위원회) 351-0883-1803-93 농협은행

사. 상기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준함.

2026. 06. 24.



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육재원





사단
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2026 International Professional Photography Seminar



2026. **8. 24**(월) ~ **8. 26**(수) / 2박 3일

📍 **모나 용평**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 사진기술 교육 · 기자재 신제품 전시 및 판매 · 캐논촬영대회

☎ 문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무처 02-454-5600

사단
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 장 이 경 희



제41대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투명한 선거관리 원칙 확인

| 취재 및 사진 변준섭 사무처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재원)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사진회관 회의실에서 제41대 회장 선거를 위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원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김갑수 위원, 김상열 위원, 김선식 위원, 송원호 위원이 참석해 향후 선거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 앞서 유재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41대 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신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협회의 위상에 걸맞은 모범적인 선거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논의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 즉시 밀봉 보관하고, 등록 마감 이후 일괄 개봉하여 심사하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 안내문 작성과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정비, 선거 관련 공고문 관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 정보 공개 방안 등 회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원칙을 재확인하며, 모든 선거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인 제41대 회장 선거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회원들의 참여 편의성과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최종 선거일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술·마케팅·AI 실무까지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안내

| 취재 및 원고작성 류수민 교육자격위원

▶ 오프닝 강의 - 교수에게 묻는다 시즌2

세미나의 문을 여는 오프닝 강의는 회원들이 평소 현장에서 품어온 고민과 질문을 각 분야 교수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무와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조언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즌2를 맞아 더욱 깊이 있는 현장 밀착형 대담이 예고된다.

▶ 기술 및 마케팅 강의

① <김우형 강사> 미래리스 카메라를 이용한 LED 지속광 촬영

눈으로 빛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촬영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지속광의 장점을 이해하고, 인물 촬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조명 세팅과 실전 표현 방법을 다룬다.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빛을 읽고 활용하는 실무 중심 강이다.

② <이강신 강사> 사진, 빛으로 그린 이야기

사진은 카메라 기술을 넘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빛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빛과 피사체를 마주하고 이야기가 담긴 사진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나눈다. 이강신 작가의 저서 『사진, 빛으로 그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③ <백옥희 강사> 시가 우리의 일 자리를 빼앗아도 취미는 못 뺏지

19년 차 유튜브버인 백옥희 강사가 AI 등장 이후 3년간의 변화를 짚으며,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창작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사라질 직업이 아닌 남게 될 가치에 주목하며 취미와 창작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탐색한다.

④ <심홍구 강사> 플레이스 세팅과 광고 인공지능(AI) 검색 세팅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비즈니스, 카카오맵 등 플랫폼 등록을 넘어 AI 검색·AI 브리핑·챗봇형 검색까지 새로운 유입 채널로 자리 잡은 환경을 분석한다. 플레이스 기본 세팅부터 AI 검색 노출 전략까지 실전 위주로 안내한다.

▶ 인공지능(AI) 실무 강의

⑤ <유현수 강사>우리 사진관 젊은 직원 AI

이미 대중화된 AI를 사진관 운영 현장에서 더욱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임을 강조하며,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⑥ <조형준 강사>AI 응용 원클릭 퍼펙트 컷아웃 기법

클릭 단 한 번으로 완벽한 누끼를 추출하는 최신 AI 기법을 공개한다.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 가능하며 별도 구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명사진·프로필사진·제품사진·합성작업 등 실무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⑦ <강성호 강사> AI 스튜디오 비즈니스

촬영·보정·홍보·고객 경험 전반에 걸쳐 사진관 운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AI의 실무 활용 사례를 다룬다. AI 이미지 제작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AI를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진관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기타 강좌

⑧ <김희덕 강사>스마트폰 사진 강사 되는 법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나 손에 쥔 카메라이자, 가장 빠르게 대중 속으로 파고든 사진 교육의 매개체가 되었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빛을 읽고 구도를 잡으며 감성을 담아내는 사진의 본질은 스마트폰 촬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에 대한 수요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원리와 촬영 모드 활용법부터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구도·빛·색감의 노하우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⑨ <한철진 강사> 이보트 교육 & 학교 앨범 작업

학교 앨범 제작은 단순한 사진 편집을 넘어 기획·촬영·후반 작업·납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실무 분야다. 이번 강의에서는 앨범 전문 플랫폼인 이보트의 기본 운용법부터 실제 학교 앨범 제작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⑩ 니콘 카메라 / ⑪ 캐논 카메라 / ⑫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

국내 주요 카메라 브랜드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벤더사 강의실이 운영된다.

제67회 국제 프로 사진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진 산업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습득하는 최고의 기회다. 협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란다. 세미나 일정 및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에 문의하기 바람. 집행부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진흥법 간담회

조경미 과장, 김민호 사무관, 김민예 주무관과 첫 공식 간담회

| 취재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는 지난 6월 22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를 방문하여 조경미 과장, 김민호 사무관, 김민예 주무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사진진흥법 제정 이후 협회가 문체부와 가진 첫 공식 정책 간담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협회는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해 사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 법 제정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룬 만큼, 앞으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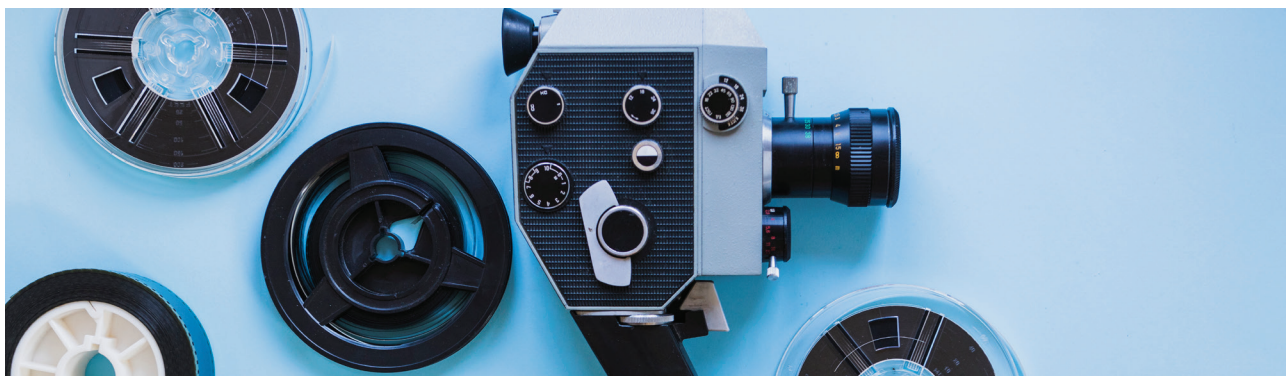
이번 면담에는 정태민 부회장,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 김우형 자문이 참석하였으며, 사진산업 현장의 현실과 사진진흥법 시행 이후의 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협회는 면담에 앞서 실시한 「AI 시대 사진산업 발전 및 공공식별사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국 사진관 실태조사」 결과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AI 생성 이미지 확산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사진산업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공공식별사진의 신뢰성과 AI 시대의 과제

협회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생성 이미지가 공공식별사진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는 단순 보정 수준을 넘어 AI가 새로운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여권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등 공공 신분증 사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사진관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원확인 체계와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의 정부인증 증명사진 스튜

디오 제도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진의 출처와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만 문체부는 사진진흥법의 기본 취지가 규제보다는 진흥에 있으며,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협회는 공공식별사진 문제 역시 단순한 규제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인식개선과 사진인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시행령 제정과 연구용역의 시작

이번 면담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문체부는 현재 사진진흥법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사진예술, 사진문화, 사진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사업이나 지원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정책 설계, 예산 확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협회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과제

면담 과정에서 문체부는 의미 있는 조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정부가 특정 협회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국민에게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협회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보수교육 운영, 사진아카이브 구축, 사진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협회가 70년 넘게 발간해 온 월간지 『사단(寫壇)』 역시 단순한 협회 소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진계의 역사와 기록을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역시 협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진문화와 건전한 사진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협회는 사진진흥법 이후의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진흥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면담은 단순히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협회는 면담에 앞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시대 사진산업 발전 및 공공식별사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진산업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함께 제안하였다.

협회는 ▲공공식별사진 국가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식별사진 인증사진사 및 인증사진관 제도 도입 ▲사진진흥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와 AI 대응을 포함한 보수교육 제도 도입 ▲사진산업 및 사진서비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체계 구축 ▲AI 생성 이미지 관리 기준 마련 ▲사진관 등록제 또는 인증제 연구 추진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사진관 업계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식별사진 체계를 구축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다. 문체부 역시 향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사진진흥법 제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보수교육 체계 구축, 사진서비스업 활성화, 사진기록 보존, AI 시대의 사진윤리 확립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사진진흥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사진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사진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진진흥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위·소비자원 현장간담회

사진업계 '깜깜이' 추가비용 근절 및 가격표 촬영 전 안내 권고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촬영 변준섭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6년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초청해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영희 표시광고감시팀장, 이미옥 표시광고감시팀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소비자원은 박종호 여행운송팀장, 송민규 여행운송팀 과장이 참석하였다. 본 협회는 장광동 감사, 나영균 기획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변준섭 사무처장이 참석을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 자율 개선으로 예방·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요금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원본파일 제공이나 앨범·액자 제작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 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장광동 감사는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는 대부분 협회 비회원이거나 광고대행 방식의 가맹형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나영균 기획위원장은 촬영업 표준 사전안내서 공동 제작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교육자료 배포를 건의하였다. 한장훈 홍보위원장은 무료 촬영 마케팅이 1960년대 봉사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관행이며, 비회원·가맹형 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권고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위반 사업자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앞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및 참여 단체 관계자 등 3,000명 집결해

취재 변준섭 사무처장

촬영 이해승 협회주재기자, 복지정책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6월 9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주변 차로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에 본 협회는 윤종성 자문,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 변준섭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원부자재비 등 각종 경영 비용 급격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및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참여 단체 관계자 3,000명 이상이 집결하여 대규모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이해승위원장 윤종성자문 변준섭 사무처장



한국환경사진협회 간담회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논의

글·사진 변준섭 사무처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는 지난 6월 17일 한국환경사진협회를 방문해 윤종성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협회 간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하였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사진예술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환경을 주제로 한 전국 규모의 사진공모전 개최와 공동 사진전 추진, 회원 간 작품 교류전 운영, 사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경희 회장은 “환경과 사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양 협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종성 회장 역시 “사진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양 협회가 함께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공동 공모전,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IGMA

ART
17-40mm F1.8 DC





나를 울리던 시간

나는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해온 음악과 나 자신을 한 프레임에 담고 싶었다.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감정을 대신 울려온 또 하나의 나였다.
이 사진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조용히 쌓여온 시간의 초상이다.



작가소개 **박용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고문
現 파스텔스튜디오 대표



선율의 잔상

“고요한 정적 속에 낮은 저음의 공명을 시각적 궤적으로 치환하다.
붉은 열정과 묵직한 고재(古材)의 질감이 만나는 찰나의 교감,
들리지 않는 선율이 사진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깊은 여운으로 번진다.”

박용호 작가



「신생몽여(新生夢旅)」 새 생명의 꿈 같은 여행

‘Above the crowd’라 새겨진 낡은 여행 트렁크 위에 포근한 니트 담요가 깔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두 볼을 바닥에 대고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다. 자주빛 배경과 아이의 보드라운 피부 톤이 따뜻한 빛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트렁크에 새겨진 문구처럼 이 작은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고 특별한 존재임을 조용히 선언한다. 이제 막 시작된 인생의 첫 여정에서 아이는 이렇듯 평화롭고 아름답다.



작가소개 박응태 작가

PPA MASTER PHOTOGRAPHER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예산지부장

現 예산중앙스튜디오 대표



不忘母恩

불망모은-잊지 못할 어머니의 은혜
돌처럼 단단하게, 한복처럼 아름답게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우리의 한복에 담긴 어머니의 삶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당신의 삶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잠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와 세상을 지키고 만들었던 모든 어머니의 품에 초대합니다.



작가소개 이정휘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명예지부장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이사
現 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2026. 7. portrait PRO

햇살 머문 정원, 네 가족의 웃음

화창한 오후, 전통 건축물을 배경으로 가족 네 명이 한 자리에 섰다. 어머니와 두 딸, 아버지가 차례로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순간을 담았다. 베이지와 아이보리 계열로 통일한 의상은 인물 간 색감의 조화를 이루며 화면 전체에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인물 네 명을 화면 중앙에 수평으로 배치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균형과 유대감을 강조했다.

chung
PHOTOSTUDIO

작가소개 **최병희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홍보위원
現 청스튜디오 대표



촬영부터 비대면 셀렉, 컨펌, 추가수익까지

모두스쿨 하나로 완벽하게



스마트촬영 & 자동네이밍

- QR코드 or 태블릿 촬영으로데이터에 학생 정보 매칭
- 파일명 노가다 탈출! 파일명 변환 1초 컷
- 엑셀 명렬표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대용량 일괄 업로드 & 자동 분류

- NAS 연동으로 수천 장의 고화질 사진도 한 번에 일괄 업로드
- 학교·학생별 자동 폴더 분류로 이메일/웹하드보다 압도적 편리함
- 번거로운 수동 작업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정리 끝



비대면 셀렉 & 컨펌

- 학생별 계정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셀렉
- 스튜디오, 학교가 실시간으로 결과 공유 및 확인가능
- 수정 요청 및 소통을 위한 메모 기능 탑재

**학부모 원본판매**

- **민원·결제·CS** 모두스쿨 전담! 작가님은 정산만 신청
- 판매 여부 및 금액 자율 설정 (학부모 대상 원본 판매)
- 판매 수익금의 70% 정산으로 확실한 추가 매출 달성

추가수익



학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개별 보안 계정 접속 | 데이터 암호화 | 저작권 보호용 자동 워터마크 |
시즌 완료 후 데이터 즉시 파기

AI 이미지 보호 및 딥페이크 오염 방지 기술

동적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사진업로드시 사이트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삽입하여
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자동 워터마크 설정 기능

무단 유출된 파일 경로를 추적하고
캡처를 방어하여 원본 가치를 지킵니다.



신규 신청 특별 혜택! 'QR 촬영 보드판' 1개 무상 증정

문의 : 파란소프트 051-624-5075



서울지회

2026 서울특별시지회 세미나 盛了

시실전 노하우 '행사축제 노하우',
'정부지원 사업' 강의 열려...

취재 황희운 서울지회 재무국장
촬영 이성환 서울지회 운영위원
최병희 협회 홍보위원



서울지회(지회장 신건정)는 지난 6월 14일 일요일 사진회관(광진구 소재)에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지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서울지회 사무국장 한장훈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박용호 서울지회 고문의 개회선언과 국기에 경례, 애국가 제창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프로사진협회 제40대 이경희 회장을 비롯해 김천식 수석부회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김재성 이사, 김인형 이사, 조규영 고문, 김선식 자문, 백영옥 자문, 변준섭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김학규 인천지회장, 정기봉 사무국장, 김경식 강원지회장, 김인수 강원지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황희운 재무국장이 회원윤리강령을 낭독했으며, 신건정 지회장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이경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회발전기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 김인형, 김재성, 한장훈 협회 이사에게는 마패형 교통카드를 수여하여 격려하였다. 축사는 조규영 고문, 김용성 선생님, 김경식 강원지회장, 김학규 인천지회장이 차례로 축하하였다.

협회장 표창은 조환정(관악지부), 문용근(성동지부), 강행림(광진지부)가 수여 받았으며, 지회장 표창으로 구광원(강서지부), 윤병달(마포지부) 회원이 수여 받았다. 강의는 김영우 강사의 '포토샵·AI·증명사진 실전 노하우'를 시작으로 이광영 강사의 '행사축제 즉석사진 영업 노하우', 한장훈 강사 '정부지원 사업과 AI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협회장 격려금



협회장 표창



지회장 표창



행운권 추첨

인천지회

2026 인천지회 2차 임원 회의

인천지회 하계세미나,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건을 다루어...

| 취재 및 사진 홍춘석 인천주재기자



인천지회(지회장 김학규)는 지난 6월 5일 인천지회 사무실(도화동 소재)에서 인천지회 김학규 지회장 주재로, 인천지회 각 지부장이 참석하여 2차 임원회의를 진행 하였다. 진행된 이날 안건은 아래와 같다.

제1호 안건: 인천지회 단합대회 결산보고

제2호 안건: 인천지회 하계세미나 일정 및 교육 계획 수립의 건.

제3호 안건: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준비의 건.

제4호 안건: 기타 안건.

첫 번째 안건은 인천지회 단합대회 결산보고는 김보선 재무국장이 보고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인천지회 하계 세미나 날짜와 장소, 세부 내용을 토론 하였으며, 회원 들의 EVOTO 교육과 레크레이션도 준비, 회원 시상을 토의하였다.

세 번째 안건은 8월24일~26일 진행될 국제세미나 관련하여 참석 회원지원과 교통 편 등을 논의하였다.

네 번째 기타 안건으로는 인천시 지부 명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지부 명 개편이 필요한 지부와 지부 명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준비 및 참석 독려는 봉사의 정신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하며 2차 임원 회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다.



김학규 지회장(의장) 회의 주재



회의모습



임원 토론

부산지회

2026 부산광역시지회 부산포토편티벌 成了

김소연 「생성형 AI 활용」
박용주 「AI 사진복원 활용법」 교육

취 재 이광호 사무국장
사 진 강영동 주재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박재영)는 지난 6월 6일(토) 부산 사상구 SMDV 강의장에서 「2026 부산포토편티벌」 및 제33회 연수대회, 제45회 촬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사진으로 만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진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회원 간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회 회원 및 사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부산지회 사무국장 이광호의 진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재영 부산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환영사, 부울경 이만식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부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최영규 이사장은 부산 사진산업 발전을 위한 축사와 함께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후원을 해준 SMDV 김종석 대표도 행사 성공을 위한 축하와 지원의 뜻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촬영대회에서는 박용주 촬영지도위원의 안내 아래 회원들이 모델 촬영을 통해 각자의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연수에서는 김소연 강사의 「생성형 AI 활용」과 박용주 강사의 「AI 사진복원 활용법」 강의가 진행되어 변화하는 사진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법을 공유했다.



촬영대회



개강식



특히 이번 강의에는 일반인도 참여해 사진 기술과 협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홍보의 장이 되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최신 사진 기자재전이 함께 열려 다양한 장비를 체험하고 새로운 기술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부산 사진문화 발전과 미래 사진산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부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발전기금



강좌



울산지회

제28회 울산광역시지회 연수대회 盛了

AI교육, 차담회,
행운권 추첨 진행해...

취재 김태만 사목국장
사진 김종운 주재기자



안성현 지회장



이경희
협회장



이만식
부회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안성현)는 지난 6월 7일 울산 동구 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28회 연수대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8시 30분 회원 등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개강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진행된 전문 강의에서는 최신 촬영기법과 AI 기반 스튜디오 활용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사진 환경 속에서 프로사진인의 역할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식에서 김희덕 명예대회장의 내빈소개 후 이만식 협회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현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연수대회가 회원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경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예정된 사진 강좌와 대왕암공원 투어를 통해 여러분의 미적 감각이 한층 더 깊어지고, 프로 사진가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울산경남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김찬홍 이사장과 자매지회인 이정주 경기도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연수대회가 단순히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울산지회 가족 여러분이 서로의 열정을 나누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재충전과 도약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중식은 '주가네 식탁'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초 오후 일정으로 예정되었던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투어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대신 참가자들은 대왕암공원 내 이디야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차담회 형식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 경험과 업계 현안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폐강식에서는 권혁만 협회자문의 강평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연수대회는 단순한 교육 행사를 넘어 급변하는 사진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공유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평가되었다.



대구지회

2026 대구광역시지회 하계연수대회 盛了

옷골마을에서 촬영대회 및
화합의 시간을 가져...

취재 박분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사진 박영철 대구지회 주재기자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광역시지회(지회장 김경환)는 지난 6월 6일 대구 동구 옷골마을(경주최씨 문중마을)에서 하계연수대회 및 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 74%가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전통 한복을 착용한 모델을 대상으로 촬영대회가 진행됐다. 참가 회원들은 옷골마을의 아름다운 전통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작품을 촬영하며 사진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휘했다.

오후에는 박분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강식과 시상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김경환 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협회장 표창과 지회장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협회장 표창으로는 윤성달 나이스포토, 박병화 삼원종합액자, 김창혁 포토다이나믹, 조춘근 아진대표가 수여 받았다. 지회장 표창으로는 김수동 주뎀스튜디오, 김태완 영남스튜디오, 안종운 비쥬브라이드웨딩, 조생 화인스튜디오가 수여 받았다.

김경환 지회장은 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서로 배우고 소통하며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경희 협회장의 격려사와 김영철 고문의 축사를 통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협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명찰 추첨에서는 참석 회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전달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화합의 시간을 보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경환 지회장은 “이번 연수대회와 촬영대회는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진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협회장 표창



지회장 표창



명찰추첨



경상북도지회

2026 경상북도지회 연수대회 盛了

캐논 R시리즈 카메라 및
AI 활용 스튜디오 실무강의 열려

| 취 재 권순각 경북지회 사무국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이도협)는 지난 6월 6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가톨릭교육원 3층 소강당에서 「2026 경상북도지회 연수대회」를 개최하며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수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진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촬영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북지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개강식은 권순각 경북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이도협 경북지회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급변하는 사진산업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연수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적인 사진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권순금 명예지회장은 “사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승호 총무이사가 맡아 「캐논 R시리즈 카메라 강의 및 시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강의는 배재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 교수인 김명관 강사가 「ChatGPT를 활용한 스튜디오 실전 AI 활용법」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특히 AI를 활용한 스튜디오 운영 사례와 실제 업무 적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오전 강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새포항 물회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캐논스토어 대전점(대표 이승호)의 특별 지원으로 이미지센서 클리닝 및 카메라 기본 점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 교류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지회

제46회 경남지회 하계연수대회 盛了

십표를 찍고 새롭게 도약하다.
재충전 “힐링 연수대회”

취재 이동기 경남지회 사무국장
사진 한명룡 경남지회 주재기자



산림 치유 체험



전우철 지회장 대회사



이경희 협회장 격려사



이만식 부회장 환영사



김찬홍 앨범조합 이사장 축사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상남도지회(지회장 천우철)는 지난 2026년 6월 3일 양산에 위치한 치유시설 ‘숲에서’에서 ‘제46회 하계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연수대회는 기존의 무거운 교육 세미나 형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회원들의 심신을 달래는 ‘휴양 및 힐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드는 한국프로사진협회”를 이끄는 이경희 협회장, 이만식 부회장, 홍상표 재무위원장, 박용주 재무이사, 김희덕 교육자격이사, 김찬홍 울산·경남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변준섭 사무처장, 박재영 부산지회장, 안성현 울산지회장, 김태만 울산 사무국장, 박선길 울산 앨범조합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산림치유 ‘두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막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체험복으로 환복한 후 자연 속에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였고, 정오에는 건강 식단으로 정성껏 구성된 치유식사로 점심을 함께 나누며 동료들과 따뜻한 정과 화합을 다졌다.

오후 1시부터 이동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강식을 하였다. 이대원 경남지회 명예지회장의 내·외빈 소개, 천우철 대회장의 힘찬 개회 선언, 국민의례와 허재준 수석부지회장의 회원윤리강령 낭독, 이만식 부회장의 환영사, 이경희 협회장의 격려사, 김찬홍 이사장의 축사 및 격려금 전달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경희 협회장은 김찬홍 정책자문위원장에게 정책자문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천우철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연수대회만큼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가는 휴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개회식과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후, 대운산 생태숲 자연 산책, 열치유실 온욕, 수치유실 입욕, 안마의자, 옥상 힐링정원 휴식과 힐링을 하며 제46회 경남지회 하계연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주·전남·제주지회

제20회 호남권 연수대회 및 촬영대회 盛了

광주지회 주관으로
담양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열려

취재 윤병선 광주지회 사무국장
사진 노광이 광산구 지부장



광주지회장 환영사



이경희 협회장 격려사

지난 2026년 6월 19일 담양리조트(전남 담양군 소재)에서 (사)한국프로사진협회「제20회 호남권 연수대회 및 촬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주회는 광주지회(지회장 김인숙)이며, 주관은 전남지회, 제주지회이다. 이번 연수대회는 광주·전남·제주지회 회원들의 화합과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협회 임원진과 각 지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개강식 전 행사로서 한장훈 홍보위원장이 “정부 지원사업과 AI 활용”에 대한 실무에 적용되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개강식 행사에는 이경희 협회장을 비롯해 정옥기 고문, 서호경 부회장, 김동한 총무위원장, 민대인 정책자문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이영익 홍보이사, 이성열 사진진흥이사, 이승호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광주지회에서는 정재식 고문(협회자문), 홍석례 고문, 채만수 고문, 전남지회 김동일 고문(협회자문), 박복근 고문(협회자문), 제주지회 고대환 부지회장, 노봉를 광주전남앨범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심선오 전남지회장, 김인숙 광주지회장, 이창훈 제주지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심선오 전남지회장의 내·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작고한 선배 사진인들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호경 호남권역 부회장이 대회장 자격으로 개회선언, 전남지회 박상열 사무국장이 회원 윤리강령을 낭독 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협회장 표창은 광주광역시지회 동림스튜디오 대표 한옥례 회원, 전라남도지회 여서사진관 김재열 회원, 제주도지회 꿈스튜디오 고대환 회원이 수상하였다. 각 지회장 표창에서는 광주지회 평화사진문화원 김명임 회원, 전남지회 태양사진관 임동원 회원, 제주지회 세종사진실 김귀홍 회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호경 부회장은 대회를 통해 “호남권 회원들이 함께 성장하며 협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김인숙 광주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남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사진예술 발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경희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협회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회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채만수 회원에게 정책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김동일 자문(선거관리위원)등 협회 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 전달되었다.

다음 날 진행되는 시니어 모델 촬영대회를 위해 광주지회 쌍광스튜디오 정제식 자문과 전남지회 참빛사진영상 김현호 대표가 촬영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원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단체기념촬영과 만찬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쳤으며, 이틀째인 20일에는 우천으로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행사를 마쳤다. 이번 제20회 호남권 연수대회 및 촬영대회는 광주·전남·제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사진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서호경 부회장 대회사



한장훈 강사



협회장 표창



광주지회표창



전남지회표창



협회임원 선물전달

광진지부

제21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盛了

K-청소년수련원에서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모델 촬영대회 열려

취재 |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사진 | 조광희 촬영실장



서울지회장 표창 김중현, 정세화



지부장표창 김진권



2025년 광진지부 촬영대회 금·은·동상 수상

서울지회 광진지부(지부장 이경우)는 지난 6월 21일 K-청소년수련원(포천시 소재)에서 「제21회 광진지부 촬영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화합과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K-청소년수련원은 문화유씨(文化柳氏) 찬성공파(贊成公派) 종친회 소유의 시설로 류기혁 고문의 도움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진행이 되었다.

신건정 서울지회 지회장, 류기혁 서울지회 고문,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한우 작가 제도이사,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정상렬 서울지회 감사, 이희춘 경기지회 부지회장, 전길운 한민족신문사 대표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광진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개강식은 김선식 총무(협회 자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식전행사로 남태우, 남지혜님의 스코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연주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조광희 촬영실장이 윤리강령을 낭독하였다. 서울지회지회장 표창은 김중현 회원과 정세화 회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광진지부장 표창은 ㈜이디지탈큐브 대표인 김진권 초대작가가 수상하였다. 지난해 개최된 제20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금상은 강갑원 추천작가가 수상하였으며, 은상은 이덕경 초대작가가 수상하였다. 동상은 강해림 추천작가, 안상원 프로작가, 최동호 프로작가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가작은 김진권 초대작가, 조광희 추천작가, 정상렬 프로작가가 수상하였다.

이경우 광진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광진지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해 주신 선배 회원들과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촬영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류기혁 광진지부 고문의 환영사, 신건정 서울지회지회장 격려사, 전길운 한민족신문사 대표의 격려사가 진행되었다.

공식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단체 기념촬영 후 만찬을 나누었다. 이어진 촬영대회에서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친목과 실력 향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회원 간 결속을 다지고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열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 비 스 전 문 기 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l.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FOMEX®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풍림테크원 7층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우수기업
The Best Company of Seoul



글로벌강소기업
Global Korea Company of Excellence

INNOBIZ
기술혁신경영소기업



경북 구미, 정태영 부회장이 소개하는 샤인머스켓 이야기

| 취재 한정훈 홍보위원장

“가족이 키운다는 건, 결국 기춘이 다르다는 뜻”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40대 부회장 정태영이 요즘 주변에 자주 꺼내는 이야기가 있다. 경북 김천에서 처남 홍재백이 직접 재배하는 샤인머스켓이다. “남의 것이 아니라 가족이 키운 겁니다. 과정을 알기 때문에 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판매를 강조하지 않는다. 가격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더 신뢰를 만든다.

“남의 것이 아니라, 가족이 키운 겁니다” 경북 구미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는 처남 (이하 홍재백 대표)은 오랜 시간 농업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유행처럼 시작한 작물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키우고 관리해온 농사의 연장선입니다. “가족이 키운 거라서가 아니라, 과정을 알기 때문에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정태영 부회장의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다.

“알고 있는 먹거리”라는 신뢰입니다.

경북 김천·경주 일대는 오래된 포도 재배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샤인머스켓이 낯선 작물이 아니다. 홍재백 대표는 퇴직 후 주변 생산자들에게 재배 정보를 꼼꼼히 얻고, 직접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유행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가능성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도 농사에서만큼은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 그 원칙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내 가족이 먹을 것처럼 키운다.”



품질이 우선이다

이곳에서는 수확 시기를 조절하지 않고 당도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상태를 확인하며 선별합니다. “조금 더 빨리 출하하면 수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품질에 대한 기준은 수확 방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홍재백은 수확 전 당도를 일일이 측정한다. 같은 나무, 같은 가지에서도 송이마다 당도가 다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송이는 그냥 둔다. 시세가 좋다고 서둘러 출하하는 타 농가와 분명히 다른 방식이다. 김천 지역에서도 품질이 덜 오른 상태로 일찍 출하해 소비자가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괜히 사 먹었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맛의 차이를 만든다. 실제로 홍재백 대표의 샤인머스켓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먹어본 분들이 다 최고라고 해줍니다.” 말 한마디에 수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담겨 있다.



당도 측정



“당도보다 중요한 건 식감과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인머스켓을 이야기할 때 당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홍재백 대표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 “당도도 중요하지만, 씹었을 때의 식감이 더 중요합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식감이 곧 품질이라는 것이다. 직접 재배한 샤인머스켓은 껍질이 질기지 않고,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한 알을 먹었을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균형이 다릅니다. “먹어본 분들이 다시 찾습니다” 이 샤인머스켓의 특징은 광고보다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드셔보신 분들이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껍질째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샤인머스켓의 핵심은 당도만이 아니다. 홍재백은 “당도도 중요하지만 씹었을 때의 식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을 수 있고, 과육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다. 한 알을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균형이 다른 포도와 확연히 다르다. 소화가 편하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꾸준히 받는다. 혈관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에 관심 많은 중장년층에게도 반응이 좋다. “아이들이 껍질째 잘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안심”이라는 홍재백의 말에서 생산자의 진심이 읽힌다. 가족이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 과일의 기준이다.

“과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 만큼 맛이 나옵니다.”

조금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딱 그 시점에 맞춰 출하합니다. “과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 만큼 맛이 나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과일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씻어서 바로 먹어도 좋고 냉장 보관 후 차갑게 먹어도 좋습니다. “재료가 좋으면,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더 좋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인터뷰를 마치며 정태영 부회장은 짧게 덧붙였다. “협회원 분들이 한 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판매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격도 강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신뢰를 만들었다.

수확은 추석 전후가 절정이다. 과일은 기다림이다.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그 시점에만 출하한다. 먹는 방법은 단순하다. 씻어서 바로 먹거나, 냉장 보관 후 차갑게 먹으면 충분하다. “재료가 좋으면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낫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이지만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올해는 포장 완충재를 보강해 택배 중 알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품질뿐 아니라 받아보는 순간의 신뢰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이다.

여수 갯김치, 건강한 식문화 정착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 이영익 홍보이사

단순히 맵고
강한 맛이 아닌

숙성 과정에서
올라오는
감칠맛이 특징



전남 여수지역은 해산물과 함께 갯김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기반 생산 구조와 전통적인 식문화가 결합되면서, 여수 갯김치는 단순한 지역 특산물을 넘어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에 거주 중인 이영익 홍보이사는 “여수지역은 오래전부터 갯김치를 생활 음식으로 소비해 온 지역”이라며 “최근에는 전국 단위 소비가 확대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갯김치, 지역 환경이 만든 음식 문화

갯김치는 여수지역의 기후와 식문화가 결합되며 발전해 온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지역은 해산물 소비 비중이 높아 젓갈과 발효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영익 홍보이사는 “여수 갯김치는 단순히 맵고 강한 맛이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 올라오는 감칠맛이 특징”이라며 “지역 식문화와 연결되어 발전해 온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조화가 좋다”고 덧붙였다.

생산 공정 관리 중요성 강조

이 홍보이사는 여수지역 내 갯김치 생산 공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좋은 갯김치는 원재료 상태와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갯 세척부터 숙성, 포장까지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안정적인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생산 환경과 위생 상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흐름도 함께 언급했다. “먹거리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대모 대표, 황대하 공장장, 이영익 홍보이사



세척



갯김치 담그기

고객님의 가족이 함께 드실 청광의 김치
국내산 최고급 재료와 청광으로 담았습니다.
청광은 당장의 이윤보다 고객님을 만족시킬
'최고의 맛'을 추구합니다.

김치를 맛있게 먹고 싶다면?
고객님의 주문 당일 갯담은 김치입니다.
약간은 맛이 덜 들어있는 새 김치이기 때문에
조금의 숙성기간을 거치면 더욱 맛있게
드시실 수 있습니다.

숙성 기간은 얼마나?
1~2일 정도 실온 숙성 후
냉장 숙성하시면 김치에 진한 양념이 배어
청광의 명품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청광의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광홍보물

계절에 따른 맛 차이 존재

갯김치는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타나는 식품으로 분석된다. 원재료 상태와 숙성 환경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홍보이사는 “적절한 시기의 갯은 식감과 향이 안정적”이라며 “숙성 상태에 따라 맛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자극적인 맛보다는 균형 있는 숙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수 식문화, 고등어와 갯김치 조합 특징

여수지역에서는 갯김치와 함께 고등어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어 구이, 조림 등과 함께 곁들이는 방식이 일반적인 식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이 홍보이사는 “갯김치는 기름진 생선류와 조합이 좋다”며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지역 음식 특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기반 지역 먹거리 연결 가능성

이영익 홍보이사는 협회 회원 간 지역 먹거리 소비 구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회원들이 생산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협회 내부에서 먼저 경험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 판매가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여수 갯김치, 지역성과 신뢰 기반 소비 확대 가능성

여수 갯김치는 단순한 반찬류를 넘어 지역성과 생산 구조가 함께 반영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생산 과정에 대한 신뢰와 지역 식문화가 결합되며 지속적인 소비 기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홍보이사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음식은 결국 이유가 있다”며 “정직한 생산 과정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 갯김치는 단순한 지역 특산물이 아니라,
지역 식문화와 생산 기반이 함께 형성한 결과물로 분석된다.

협회 내부 소비 구조와 연결될 경우,
지역 간 상생 기반 확대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여수 갯김치는 지역 먹거리가 단순 판매를 넘어 생산 신뢰와 식문화 중심으로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협회 회원 간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새로운 공동체 기반 유통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영상 장비의 모든 것

가나사진기구

스튜디오 구축부터 장비 설치, 사후 관리까지
촬영 환경 구축 토탈 솔루션



사진관 및 스튜디오
창업 제품 판매



사진조명 & 영상조명
설치 전문



전동 배경, 크로마키
설치 전문



사진 기자재
수리 전문



02. 3675. 6698

gana2000co@hanmail.net | www.gana2000.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길 21(돈의동) 2층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되는 시작입니다

종이 앨범의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하나로

DIGITAL GRADUATION ALBUM



학생들의 웃음, 친구들과의 순간, 그리고 학교의 기억까지.
이제 졸업 앨범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추억”**이 됩니다.



모바일 디지털 앨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감상



졸업 영상 탑재

졸업식, 학교 행사 등
영상 콘텐츠로
생생한 추억을



학급 커뮤니티 기능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이어가는 공간



사진 선택 연동

편리한 사진 선택 시스템
연동으로 쉽고 빠르게
앨범 제작



안전한 보안 시스템

캡처 방지와 같은
안전한 보안 기술로
소중한 추억을 보호

PRINT × DIGITAL × MEMORY

인쇄의 가치와 디지털 경험을 함께 제공합니다.



학교는 더 편리하게

- 인쇄+디지털 통합 운영
- 학생 만족도 향상
- 최신 디지털 트렌드 대응
- 학교 브랜드 이미지 강화



학생은 더 즐겁게

-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
- 영상과 함께 생생한 추억
-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결

MEDIA



주식회사 미디어피앤피

&

40년 이상의 사진·인쇄 제작 경험과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만나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새로운 졸업 앨범 문화를 만듭니다.



40년 이상의
제작 경험



전국 학교
제작 경험 보유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www.mediapnp.co.kr



물 위의 群舞(군무)

안개 자욱한 수면 위로 굽이치는 노목(老木)들이 마치 살아 숨 쉬듯 몸을 비틀며 서 있고, 고요한 물 위에 드리운 반영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운다. 좌측 상단의 붉은 단풍잎만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청회색 모노톤 속에 선연한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깊어가는 가을의 쓸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한다. 앙상하게 드러난 가지의 섬세한 선묘(線描)와 수면 반영의 이중 구조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시적(詩的) 화면을 완성한다.



작가소개 김갑수 작가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포토매니아 대표

차밭의 봄

싱그러운 오월의 차밭은 연중 가장 아름다운 연둣빛이다.
보성의 계단식 차밭은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곱게 빗질한 듯 우려한 차밭, 그 곡선의미를 프레임 안에 담았다.



작가소개 김현호 작가

한울문학 시 부문 등단(2007년) 전남한울문협
보성문협 회원
전남문협 영상분과위원장
보성예총 수석부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개인전 6회 「보성의 풍경」 「차밭에 머물다 2」
시화전 「봄View, 시와 사진의 만남」
시집 「차꽃 피면 만나리」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참빛사진영상 대표





대한다원정상 소나무

이 작품은 깊게 뻗어 나온 소나무의 뿌리와 하늘로 치솟은 줄기를 통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과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칠게 드러난 뿌리는 오랜 세월 바람과 비, 계절의 변화를 견뎌온 흔적이며, 단단히 대지를 움켜쥔 모습은 흔들림 없는 존재의 힘을 상징한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가지들은 생명의 확장성과 자연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화면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는 시선의 흐름은 나무가 지닌 웅장함과 숭고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특히 굽이진 줄기와 얽힌 뿌리의 형태는 단순한 풍경을 넘어 하나의 조형적 이미지로 다가오며,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예술적 선율을 느끼게 한다.

소나무를 통해 '버팀'과 '순환'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인간 또한 삶의 근원과 기억 위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 속 소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시간과 생명의 서사를 품은 상징적 존재로 자리하며, 관람자에게 자연 앞에서의 겸허함과 내면의 사유를 이끌어 낸다.



작가소개 서현호 작가

2012 한국예총 사진인인상 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
“인생은 자유다” 서현호사진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지도위원



갈대습지의 여명

해 뜨기 직전, 산자락 너머로 첫 빛이 번지는 순간을 광각 파노라마로 포착한 작품이다. 화면 중앙에서 솟아오르는 햇살이 구름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늘 전체에 걸친 권운(層雲)의 겹이 자연스러운 깊이감을 더한다. 전경에는 짙은 초록빛 습지·초지가 화면 절반 이상을 채우며 안정적인 수평 구도를 형성한다. S자로 굽이치는 하구(河口)의 물길 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시선을 자연스럽게 지평선 너머 산세로 이끌고, 중앙에 자리한 목조 전망대와 탐방로는 광활한 습지의 스케일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측의 갯벌과 정박한 소형 선박들은 이 지역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 생태계임을 보여주며, 좌측 마을의 불빛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대임을 암시한다. 원경의 첩첩 산능선은 옅은 안개에 싸여 공간의 원근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작가는 일출 직전의 짧은 매직아워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하늘과 대지, 물과 빛이 한 화면 안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했다. 광활한 습지 생태와 여명의 빛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자연이 빚어내는 장엄한 순간을 기록한 풍경 사진의 정수를 보여준다.

작가소개 이용일 작가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천시 지부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라남도 지회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교류 이사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문화원 이사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39대 협회 감사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0298호 초대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 자문





태양을 향한 직선

한낮의 강렬한 태양을 정면에 두고 보리밭을 광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화면 상단의 태양은 렌즈 플레어와 함께 화면 중앙에 강한 빛의 점을 형성하며, 구름 한 점이 그 빛을 살짝 가려 부드러운 광선 효과를 만들어낸다. 구도는 전형적인 삼분할 원근 구도를 따른다. 전경의 짙은 초록 보리밭이 화면 절반 이상을 채우며 시작되고, 밭이랑 사이로 난 좁은 농로가 화면 중앙을 가로질러 원경의 방풍림(防風林)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며 강한 소실점을 형성한다. 이 직선 구도는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화면 깊숙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작가소개 **이희춘 작가**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현)

운해 위로 핀 철쭉, 초암산의 봄

이른 아침 초암산 정상부를 드론으로 촬영한 작품으로, 능선 전체를 뒤덮은 진분홍 철쭉 군락이 화면 전면에 펼쳐진다. 정상기 기암(奇巖) 사이로 굽이치는 등산로가 화면 깊숙이 이어지며 시선을 자연스럽게 원경으로 이끈다.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운 운해는 골짜기와 먼 산을 부드럽게 감싸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첩첩이 펼쳐진 산줄기는 옅은 청회색으로 멀어지며 깊은 원근감을 형성한다. 부감(俯瞰) 시점은 철쭉 군락의 광활한 규모와 능선의 굴곡을 한눈에 담아내며, 진분홍과 청록의 색채 대비가 화면 전체에 강한 생동감을 부여한다. 철쭉 만개 시기와 운해가 형성되는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짧은 순간을 포착하여, 초암산이 지닌 봄철 절경의 정수를 한 장의 파노라마로 완성했다.



작가소개 임병학 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위원장





복주머니 蘭

복주머니란은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으며
꽃말은 '튀는 아름다움', '숲속의 요정 이다.'
복주머니란은 예전에는 요강꽃, 개불알란, 개불알꽃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꽃의 생김새가 복주머니를 닮아 붙여져 현재는 복주머니란으로 개명했다.



작가소개 정세화 작가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다수
광진구청장 표창 다수
광진구의회 의장 표창 다수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40대 작가제도위원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EOS R EOS R EOS R EOS R EOS R EOS R EOS R EOS R EOS R EOS R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 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좋은 카메라보다, 멈추지 않는 카메라

사진관 장비 선택 기준, 'A/S'를 말하다

| 이승호(본회 대회협력이사·대전지회 사무국장)
대전 캐논스토어 (주)카메라대학병원 대표

— 사진관에서 카메라가 멈춘다는 것

예약이 잡힌 촬영 당일,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관에서 장비 고장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곧 매출의 중단이고, 고객과 어렵게 쌓아 온 신뢰의 손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비를 들일 때 가격과 스펙은 꼼꼼히 따지면서, 정작 그 장비를 오래 지켜 줄 'A/S(사후관리)'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38년간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진관 장비 선택의 진짜 기준은 '무엇을 사느냐'만큼이나 '누가, 어떻게 끝까지 지켜 주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 '사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는 정밀 기기입니다. 셔터에는 수명이 있고, 센서·접점·마운트는 사용할수록 점검이 필요하며, 펌웨어는 꾸준히 갱신됩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검과 수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더구나 사진관에서 카메라는 취미 도구가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생산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장과 수리 대기의 무게가 일반 사용자보다 훨씬 큼니다. 결국 좋은 장비란 '잘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 안정적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미러리스 시대, A/S가 더 중요해진 이유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카메라의 전자화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전자식 뷰파인더, 전자셔터, 고도화된 자동초점 모듈처럼 정밀 전자 부품의 비중이 커졌고, 펌웨어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정품 부품과 정식 기술에 기반한 사후관리의 가치도 함께 커졌습니다.

정식 경로의 A/S는 정품 부품 공급, 제조사 보증, 검증된 수리 기술이 함께 갑니다. 장비를 오래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사진관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를 분명히 체감하게 됩니다.



— 현장의 한 사례 - “판매와 A/S는 한 몸”

이런 기준을 두루 갖춘 현장이 우리 협회 안에 있습니다.
본회 총무이사이자 대전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 대표(대전 캐논스토어·(주)카메라대학병원)입니다.

(주)카메라대학병원은 2대에 걸친 62년 전통의 수리 명가로, 1990년대에 일본 12개 카메라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부품 공급과 수리 기술을 직접 이전받았습니다. 필름 카메라부터 최신 미러리스까지 다루며, 세상의 카메라 99%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캐논 공식 A/S 서비스와 판매를 함께 운영하는 지점입니다.

(주)카메라대학병원이 30여 년간 지켜 온 신념은 한결같습니다. “판매와 A/S는 한 몸이다. 판매와 함께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고객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신조로, 구입한 곳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사진관이 장비를 맡길 때 가장 든든한 조건인 것입니다.

— 미러리스를 들일 때, 함께 보아야 할 것

미러리스 전환은 분명 사진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다만 장비 자체의 스펙만 보지 마시고, “이 장비가 멈췄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되살려 줄 것인가”를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새 장비를 들일 때부터 정식 A/S 경로를 함께 확보해 두면, 전환의 효과는 훨씬 오래갑니다.

1. 자주 쓰는 작업부터 한 대

- 인물·증명처럼 회전이 빠른 영역에 먼저 투입해 효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2. 정식 경로로 구입

- 정품 보증과 A/S를 처음부터 함께 확보합니다.

3. 정기 점검 습관화

- 고장이 나기 전 관리로 영업 공백(다운타임)을 예방합니다.

— 좋은 사진은 ‘멈추지 않는 장비’에서 나옵니다

카메라는 결국 도구이고, 사진의 본질은 사람과 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춘다면 아무리 좋은 시선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고르는 안목만큼, 그 카메라를 끝까지 지켜 줄 A/S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비를 새로 준비하실 때, ‘사는 것’과 ‘지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회와 대전 캐논스토어로 문의 주십시오. 사진인 모두의 상생을 기원합니다.

— 좋은 A/S 파트너의 조건

그렇다면 사진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A/S를 따져야 할까요. 장비를 들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확인 항목	사진관 관점에서 왜 중요한가
정품 부품 공급	정품 부품으로 수리해야 본래 성능과 제조사 보증이 유지됩니다.
공식 기술·교육 이전	제조사로부터 정식 기술을 이전받은 곳일수록 신 모델 대응이 빠릅니다.
수리 소요 시간	빠른 처리로 영업공백 최소화 사진관의 매출 보전에 줍니다.
판매·A/S 원스톱	구입한 곳에서 점검·수리가 되면 이동과 대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 세대 대응 폭	필름부터 미러리스까지 원스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후 점검 제안	고장이 나기 전 점검·관리하여 장비 수명을 늘려 줍니다.

(주)카메라대학병원 · 대전·세종·충청·충남 총판
(전국 유일 캐논 공식 A/S·판매 병행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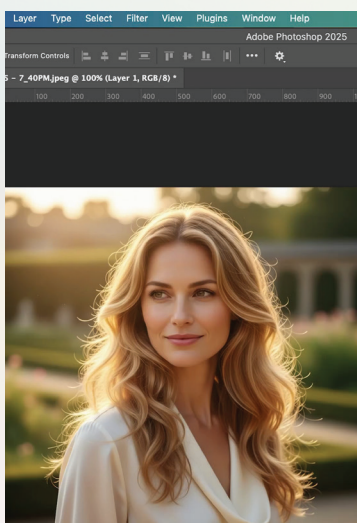
Photoshop 헤어컬러 체인지

마스트 기능을 활용한 초스피드 염색 기법

| 글 조형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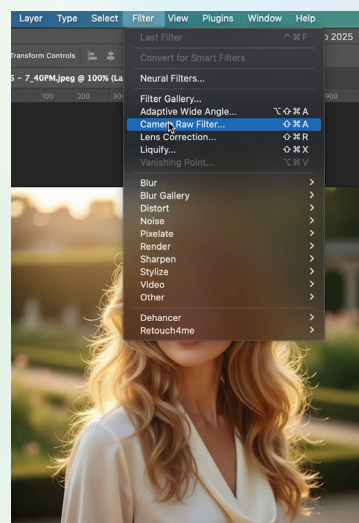
인물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헤어 컬러입니다. 하지만 촬영 후 모델의 머리색을 바꾸는 작업은 과거엔 정교한 누끼 작업이 필요한 고된 일이었죠. 오늘은 포토샵의 Camera Raw Filter 내에 있는 AI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단 10초 만에 자연스러운 헤어 컬러를 구현하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01 준비 및 Camera Raw 진입



1 보정할 사진 열기

- 포토샵에서 모델의 헤어 컬러를 변경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 원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Ctrl + J'로 레이어를 복사해 두는 센스는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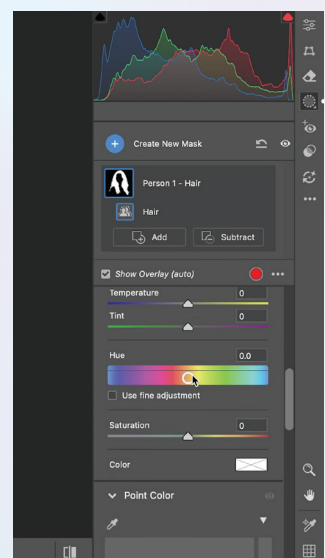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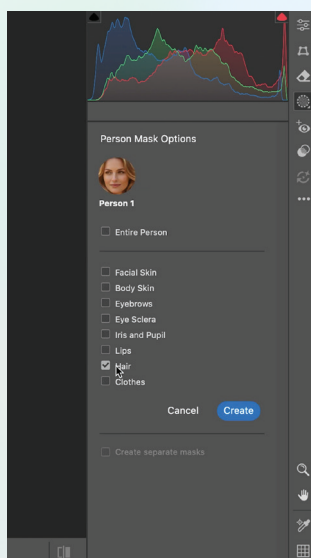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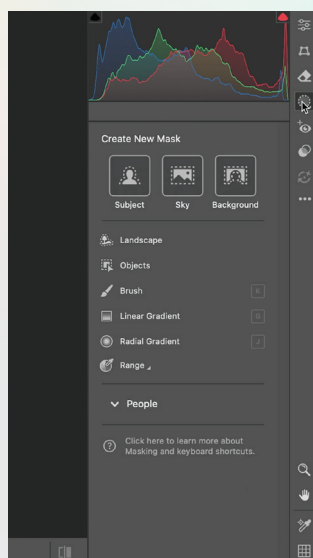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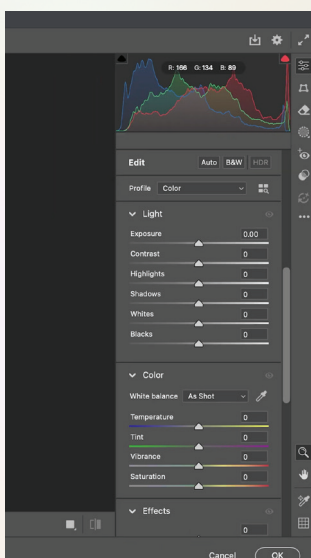


2 Camera Raw 필터 실행

상단 메뉴에서 [Filter] → [Camera Raw Filter...]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Shift+A'를 누릅니다. 이제 포토샵 안의 작은 암실, 카메라 로우 창이 뜹니다.

강좌 핵심 단계!

02 AI 마스크링과 컬러 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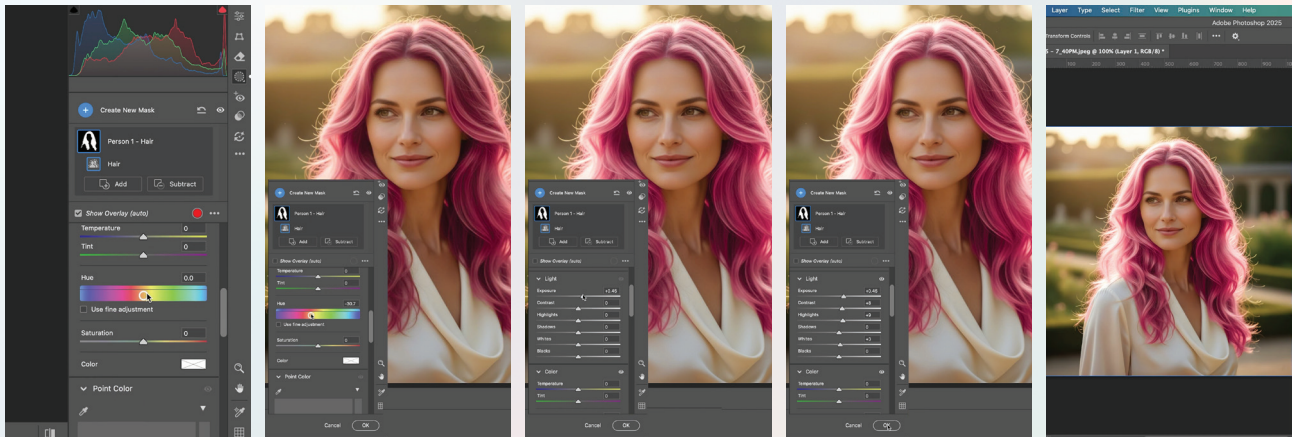
1 마스크링 패널 및 인물 선택

우측 툴바에서 [Masking] 아이콘(원형 점선 모양)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시가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2 헤어 영역만 정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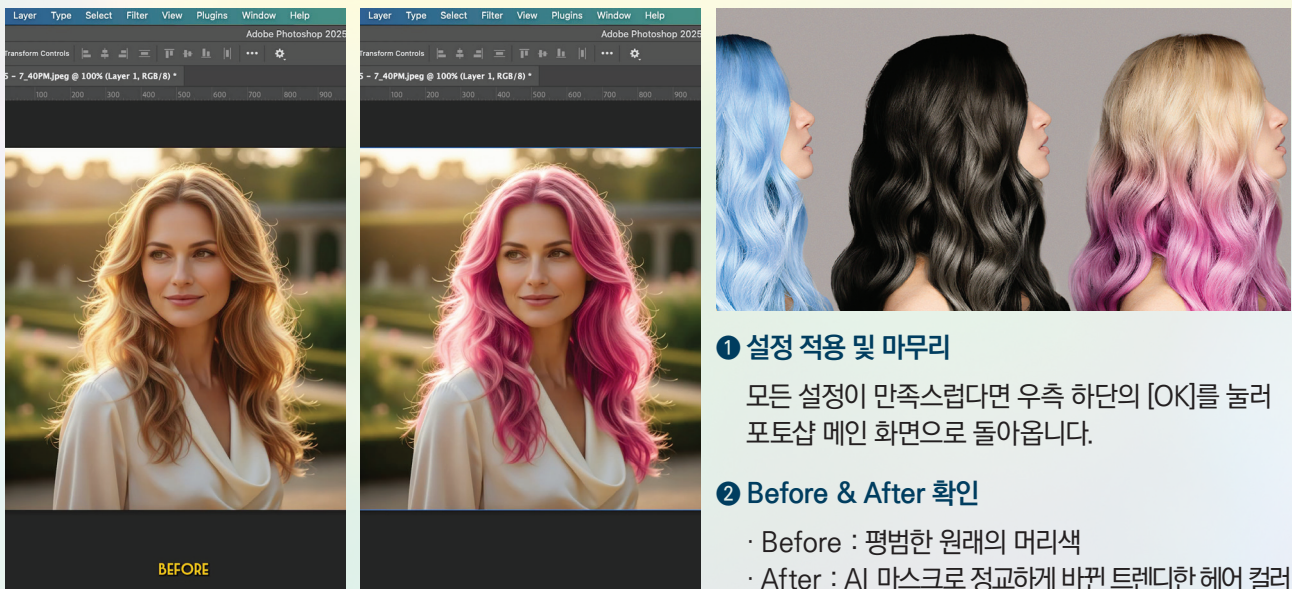
검색된 인물(Person) 항목을 클릭하면 세부 선택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Hair]만 체크하고 하단의 [Create] 버튼을 누르세요. 순식간에 머리카락 영역만 정확하게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03 Hue(색상) 슬라이더 조절



- 1 이제 마법이 시작됩니다. 우측 보정 패널에서 [Hue]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머리카락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핑크, 블루, 그린 등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자연스럽게 입혀집니다.
- 2 디테일 보정(밝기 및 대비) 색상만 바꾸면 자칫 이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항목들을 미세하게 조정해 완벽한 룩을 완성하세요.
 - Exposure(노출) & Brightness: 염색된 머리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 Contrast(대비): 색상의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 Highlights: 머릿결의 윤기를 살려줍니다.

04 최종 완성 및 Before & After



1 설정 적용 및 마무리

모든 설정이 만족스럽다면 우측 하단의 [OK]를 눌러 포토샵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2 Before & After 확인

- Before : 평범한 원래의 머리색
- After : AI 마스크로 정교하게 바뀐 트렌디한 헤어 컬러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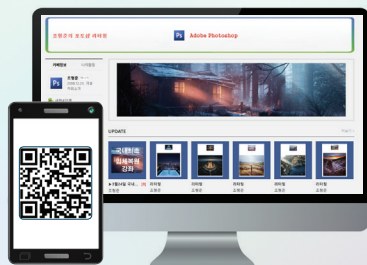
이 기법의 핵심은 시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브러시로 일일이 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품 사진 촬영 후 상품의 색상을 바꿀 때도 응용해 보세요.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조형준 포토샵 카페

HP: 010-5359-4247

<https://cafe.naver.com/retouch3>



조형준 강사 프로필

[수상 경력]

- 2006년 국내최초 사진 회화리터칭 전문가 과정
- 2025년 국내최초 사진 입체 복원 전문가 과정
- PPA 미국사진협회 7년 연속 수상 (포토그래픽 분야)
- 독일 Digital Retouch Photographic 분야 수상
- 캐나다 Digital Art Competition 국제공모전 대상
- 유럽 International Photo ART 4RD Prize 수상
- 서울경제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주관 NFT 대상
- 서울옥션-업비트 NFT 사진분야 1위 수상
- 헐리우드 Weta Digital 컨셉아트 전문가부문 수상

[강의 경력]

- 뉴욕대 사진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 아트웍 강의
- 건국대 포토그래피 사진 아트웍 강의
- 한성대 멀티미디어학과 아트웍 강의
- 가천대 광고영상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사진관 영업이 어렵다고?

사진관이 시대정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 최병희 홍보위원

PRO portrait 2026. 7.

요즘 사진관 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모임에 나가도 그 말이고, 사진 협회 행사에 가도 그 말이다. 다들 힘들다고 한다. 손님이 줄었다고 한다.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 다른 생각이 올라온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어렵다. 왜 어려운지도 알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다.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찍는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사진을 남긴다. 아이의 웃는 얼굴, 식사 자리, 여행지에서 만난 노을. 지하철에서도 찍고, 카페에서도 찍고, 공원을 걷다가도 찍는다. 누군가를 찍어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직접 찍기도 한다. 이제는 누구나 카메라를 들고 살아가는 시대다. 어쩌면 전 세계가 사진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진관이 어렵다고 말한다.

사진은 넘쳐나는데, 왜 사진관은 어려워졌을까. 나는 그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다.

사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다. 필자는 1980년대 초 암실 보조로 사진을 시작했다. 필름을 현상하고 확대기 앞에 서고, 카메라 뒤에 섰다. 야외 웨딩 현장을 뛰고, 스튜디오를 열고, 중국까지 나가 현지 시장을 배웠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진업계가 흔들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안다. 결론은 하나였다. 사진관이 시대정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기계를 이겨본 적 없는 인간

역사를 보면 인간이 기계를 이겨본 적이 없다. 방직공들은 방직기가 나왔을 때 기계를 부렸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한다. 기계를 없애면 일자리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결과는 반대였다.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도태됐고, 기계를 먼저 배운 사람들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됐다.

인쇄공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전기가 나왔을 때 활판 인쇄공들은 자리를 잃었다. 사진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컬러 자동 현상기가 나왔을 때,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보정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사진업계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계와 싸운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먼저 올라탄 사람들이었다.

2002년이였다. 나는 후지필름 에스2 프로 디지털 카메라가 한국에 30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중 15대를 한꺼번에 확보했다. 당시 암실 직원들이 반발했다. “우리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암실 설비 전체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거래처도 다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했다. “한 번에 싹 바꾸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게 내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결단이 옳았다. 지금 스마트폰이 그 자리에 있다.



시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것이다

사진관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모두가 핸드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핸드폰이 등장하기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다. DSLR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사진관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카메라를 직접 사서 사진을 찍는데 누가 사진관을 찾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그때도 사진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필름에서 디지털로 이동했을 뿐이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이미 고객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로 엮어 남기는 일은 아직 남아 있다. 어쩌면 그 영역은 아직 누구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핸드폰에 쌓인 수만 장의 사진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 결혼 전후 사진, 아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어느 폴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클라우드에 올려두긴 했는데 보지는 않는다. 날아갈까 봐 USB에 복사해뒀는데 USB도 어디에 있는지 가물가물 하다. 그 사진들이 제대로 된 형태로 남겨지길 원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사진관의 새로운 역할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사람들은 이미 구슬을 갖고 있다. 수만 개씩 갖고 있다. 그 구슬을 꿰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사진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매일 찍는 사진이 역사이다.

필자의 딸이 아기의 사진을 폰으로 찍은 사진은 보내 왔다. 세상 어떤 전문 작가의 작품도 그 사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아니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 사진들을 모아 책을 만들었다. 손주가 태어난 날부터 첫 돌까지, 핸드폰 안에 잠들어 있던 수백 장의 사진을 꺼내어 실로 한 뼘씩 엮었다. 손에 잡히는 책으로 완성하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생각했다. 이거 나만 누리면 안 되겠다.

세상에 아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찍어온 사진이 핸드폰 안에 수천 장, 수만 장씩 쌓여 있다. 날아갈까 봐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USB에 백업해두고, 그러고는 다시 열어보지 않는다. 사진관이 찍어준 사진만이 추억이 아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 문을 열던 그 순간, 처음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고 손을 잡던 그 순간, 아이가 처음 혼자 일어서던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사진사가 절대 담을 수 없는 장면들이다. 오직 그 가족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지금 핸드폰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폰투북을 시작했다. 당신이 매일 찍어온 그 사진들이 진짜 당신의 역사다. 그 역사를 손에 잡히는 책으로 만들어드리는 것. 핸드폰 사진은 사라지지만, 책은 남는다. 내가 찍든 고객이 찍든, 사진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다. 고객이 찍어온 사진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해 주는 곳이 사진관이야 한다. 새 시대의 변화를 적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는 안내자로 볼 것인가. 그 시선 하나가 지금 사진관의 운명을 가른다.

어렵다는 말 뒤에 숨지 말자. 어려운 이유를 찾고, 그 이유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자. 변화를 인지하고 흐름에 올라타는 것. 그게 지금 우리 프로 사진작가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선배님의 사진, AI로 되살리다

흑백 채색 복원과정 인공지능(AI) 활용 워크플로

| 사진작업 김영우 서울지회 부지회장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디지털 시대, 사진가의 작업실은 이제 카메라 앞만이 아니다. 촬영 이후의 후반 작업 공간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칼럼은 흑백 원본 사진을 AI 채색 복원하는 전 과정을 실제 작업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본다. 작품원본은 1969년 6월 회보(당시 PA LIFE) 송광수 선배님의 작품이다.



① 원본



② 손동작이 바뀌고 손이 하나 더생김

① 원본

체크무늬 헤어밴드를 두르고 줄무늬 의상을 입은 인물의 표정과 포즈가 또렷하게 담겨 있으나, 색채 정보는 전무하다. AI 채색의 성패는 이 원본의 해상도와 명암 대비 품질에 크게 좌우된다.

② 1차 AI 적용 결과

AI 생성형 채색을 적용한 첫 번째 결과물에서 즉각적인 오류가 발견됐다. 원본에서 턱 아래 모아진 손의 동작이 바뀌었고, 손가락이 하나 더 생성되는 전형적인 AI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나타났다. 의상의 줄무늬 색상도 원본의 의도와 다르게 적용됐다. 이는 AI가 맥락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 유형으로, 생성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두번째 적용눈동자 부분이 틀려서

③ 2차 AI 적용 결과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재생성한 결과물에서는 손의 형태가 개선됐으나, 이번에는 눈동자 방향과 형태가 원본과 달라지는 새로운 오류가 발생했다. 얼굴의 세밀한 부분은 AI 채색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④ 포토샵 적용 수정·보완

④ 포토샵 적용 수정·보완

AI 결과물만으로는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포토샵(Photoshop)을 활용한 수작업 보완에 들어갔다. 눈동자와 손 부분을 원본 형태에 맞게 마스킹(Masking)하고 재조정했으며, 의상의 색감과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 AI와 전통적 디지털 보정 도구의 병용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단계임을 알 수 있다.

⑤ 최종 완성본

반복 수정과 포토샵 보완 작업을 거쳐 도출한 최종본이다. 원본의 포즈와 표정을 충실히 살리면서 색채가 자연스럽게 입혀졌다. 흑백 사진 특유의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현실감 있는 색감이 더해져 원본 사진의 시대적 감성이 고스란히 복원됐다.

⑥ 플렉스(Flux) 모델 후속 작업

완성본을 기반으로 최신 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플렉스(Flux)를 추가 적용한 결과, 현대적 감각의 피부 묘사와 조명 효과가 더해지며 사진의 인상이 크게 달라졌다. 복고적인 원본의 감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사례로, 어떤 방향성을 선택하느냐는 작가의 의도와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AI 채색 복원 작업은 단순히 버튼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며 도구를 선택하는 과정 전체가 작가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창작 행위다. AI는 강력한 보조 도구이지만, 결과물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진가의 눈과 손이다.



⑤ 완성본



⑥ 후기 플렉스로 작업하여 현대적으로 바뀜

검색이 안 되면 손님도 없다

| 남유행 사진문화위원장

사진관이 어렵다고들 한다. 모임에 나가도 그 이야기, 협회 행사를 가도 그 이야기다. 손님이 줄었다, 매출이 떨어졌다, 예전만 못하다. 나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정말 손님이 없는 걸까. 아니면 손님이 우리를 못 찾는 걸까. 가까운 동네 식당을 생각해보자. 맛있기로 소문난 집인데 간판도 없고 네이버 지도에도 없다. 찾아오는 단골이야 있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지나치고 만다. 사진관이 딱 그 꼴이다. 실력은 있는데 찾아오는 방법을 모른다. 아니, 찾아올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손님은 지금 어디서
사진관을 찾는가



요즘 사람들이 처음 가는 식당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지인에게 물거나 검색한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나온 곳 중에서 사진이 좋고 리뷰가 많은 곳을 고른다. 사진관도 마찬가지다. '○○시 가족사진'이나 '○○동 증명사진'을 검색해서 나온 목록 중에 선택한다. 검색 결과에 없으면 선택지에도 없다.

네이버 지도를 열어서 내 지역에 '사진관'을 쳐보자. 거기에 우리 이름이 보이는가. 보인다면 사진은 몇 장인가. 리뷰는 있는가. 영업시간과 전화번호는 맞는가. 이것들이 다 갖춰진 사진관과 이름만 덩그러니 등록된 사진관은 고객의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검색이 먼저고
방문이 나중이다



10년 전에는 좋은 자리에 간판을 달면 손님이 들어왔다. 지금도 오프라인 입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으로 답을 찾아놓는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나서 이동한다. 즉, 선택은 온라인에서 이미 끝난다.

이 말은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으면 발걸음을 옮길 이유조차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간판이 아무리 잘 보여도 검색 결과에 없는 가게는 없는 가게와 같다. 오프라인 입지가 온라인 존재감으로 이동한 지 이미 오래됐다.

지금 당장 검색해보는
것이 시작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지금 스마트폰을 들어 우리 지역 이름과 '사진관'을 검색해 보자. 몇 번째에 내 이름이 나오는가. 경쟁 사진관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들이 올린 사진은 어떤가. 리뷰는 얼마나 있는가. 이 비교 하나가 지금 내 온라인 위치를 알려준다.

어렵다는 말 뒤에 숨기 전에, 손님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길이 없으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 오늘의 간판은 인터넷이다. 거기에 우리 이름이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한 90년의 그리움

| 글·사진 김충식 사진병원

올봄,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사진 복원 의뢰를 위해 사진병원을 찾았다. 고객은 친척으로부터 전달받은 작은 흑백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그 사진은 80대 중반의 시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하고 싶어 하셨던 소중한 가족사진이었다. 사진 속 인물은 시어머니의 아버지였다. 신문기자로 활동하던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아직 어머니 뺏속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아오셨다고 한다.

복원이 완료된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전달한 후, 고객으로부터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완성된 사진 액자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다. 평생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다. 그 속에는 잊혀진 기억과 가족의 역사,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감동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이번 복원 작업은 약 90년 전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스캔 후 AI 복원 기술을 적용해 피부 질감과 의상, 배경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세심하게 살피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얼굴 이미지는 원본의 특징과 인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사진일수록 과도한 보정이나 채색은 오히려 원본이 가진 역사성과 감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평생 상상해 온 아버지의 모습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원본에 가까운 색감과 분위기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 복원을 마무리했다.



원본



AI 적용



완성

연수대회 70년의 역사

| 글 한장훈 홍보위원장

회원 여러분은 연수대회의 어떤 추억이 있는가? 네이버가 없던 시절, 1999년 스물아홉이던 필자는 기자재업체의 도움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큰 행복이었다. 정보를 구할 곳이 없던 시절, 세미나 강의장은 그 자체로 생존의 교실이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여름,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교육위원으로 처음 세미나를 준비했다. 그해 새벽 2시에 잠들고 새벽 6시에 일어났다. 강사 자료를 정리하고, 강의장 배치를 점검하고, 직접 강의로 하였다. 진행 순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감으며 준비했던 시간이 필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다.

이제 홍보위원장으로 그 70년의 기록을 회보에 담는 일을 맡았다. 부족한 글이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으로 무게와 가치를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세미나의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자 이제 선배님들의 연수대회와 시대별 교육을 살펴 보자.

세미나의 시작 부산 해운대 하기연수대회 (1955년 8월 1일)

전국사련(全國寫聯) 창립 불과 4개월 만에 열린 제1회 하기연수대회. 전국에서 140여 명의 사진인이 모였다. 당시 기록을 보면 광목천을 두르고 대형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으며 6박 7일을 함께하였다. 경기도지부 총무부장 김기창의 수기에는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억센 파도소리 요란스럽고 수평선 멀리 갈매기 노니는 해변에 바람은 시원하다. 대망하던 연수대회의 개강식은 모여든 회원들에 의하여 멋들어진 분위기를 양성했다. 式後 분대가 편성되고 배식이 있고, 흡사 군대에 편입된 것만 같다.”



1957년 속리산 연수대회 박필호 고문 강의



1958 물놀이



1958년 가마솥 식사 배식



1966 제9회 연수대회 전북 변산해수욕장

일과표는 군대식이었다. 새벽 6시 기상, 조식 전 강의, 오전 내내 강의, 오후에는 해수욕 자유시간, 저녁 좌담회, 밤 9시 소등·취침. 강의 내용은 정희섭 회장의 ‘영업사진의 예술성’, 박필호의 ‘사진의 원리’와 ‘형모학(形貌學: 얼굴과 체형으로 인물을 분석하는 학문)’ 등이었다. 형모학은 오늘날로 치면 고객의 외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앵글과 포즈를 잡는 기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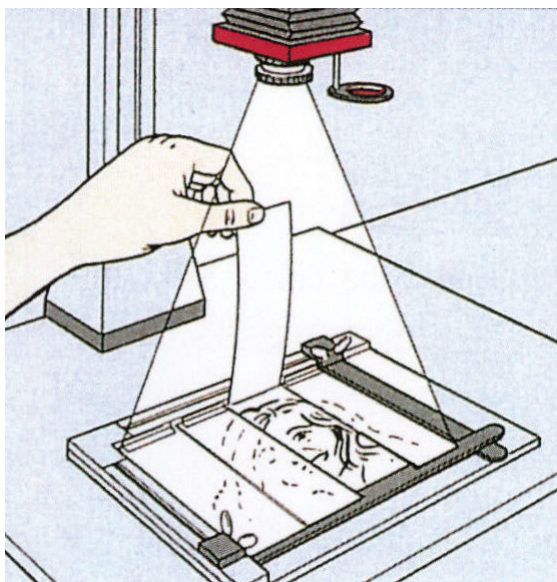
1950~60년대는 ‘인생과 예술’, ‘오일과 브롬오일 인화법’, ‘수세에 대하여’, ‘고무인화법’ 등 사진의 기초 원리와 예술성 탐구가 중심이었다. 1960년대 연수대회에서는 배구·축구·노래자랑·바둑·장기대회까지 열렸다. 1968년 제11회 합천 해인사, 1969년 제12회 설악산, 1972년 제15회 해인사 — 유서 깊은 사찰과 산속이 강의장이 되었다.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체육대회와 오락. 정보가 철저히 폐쇄되어 있던 시대에 선배들이 나눠주는 기술 한 가지가 금과옥조였다. 선배 사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만 하다가 여름에 세미나 가는 것이 낙이었다고 전해진다. 1978년 제21회 공주 동학사 대회에서는 350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로 성장하였다. 박필호 선생의 ‘형모학’, 최익찬 교수의 ‘필터 활용법’ 등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세미나의 전환점의 시대

1979년은 전환점이었다. 일본의 세미나를 참관하고 돌아온 김영상 이사장이 연수대회를 격상시켰다. 명칭을 ‘하기사진대학강좌’로 변경하고, 장소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호텔급 강의실로 바꾸었다. 기간은 6박 7일에서 2박 3일로 줄었지만 참가 인원은 오히려 300명을 넘어섰다. 강의 내용도 달라졌다. 서울대·중앙대·동아대·고려대 교수들이 대거 강단에 섰다. 이 시기 강좌 목록을 보면 흥미로운 시대상이 읽힌다.

국내외 경제동향, 불황 타개를 위한 경영론, 새마을 교육, 최근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좋게 말하면 정신 교육이요, 나쁘게 말하면 군사정권 시대의 민방위 교육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동시에 초상사진 140년의 역사, 세계적 인물사진가의 비교론, 유럽 사진계의 동향, 현대 사진의 방향 같은 인문적 강의들도 가득하였다.

기술 강의로는 칼라사진 확대인화 실제(두산현상소 송인성 소장), 상품사진 스튜디오 테크닉(유경선 교수), 광고사진 표현을 위한 테크닉 등이 인기였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비디오 관련 강좌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홈비디오의 구성과 연출’, ‘비디오촬영과 편집기법’, ‘S-VHS와 표준VHS 방식의 차이점과 화질 비교’. 1970년대가 칼라 강의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는 비디오 강의의 시대였다.



1990년대 아날로그 마지막 전성기

1990년대 세미나는 폭발적 성장과 뼈아픈 민폐가 공존한 시대였다. 1991년 제34회 경주 콩코드호텔 대회에 예년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994년 제37회 경주 현대호텔 대회에는 세미나 역사상 최대 인원인 1,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호텔 대연회장이 좁게 느껴질 정도였다. 2000년 제43회 대회에는 사상 최대인 1,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씁쓸한 장면들도 있었다. 일부 회원들이 호텔 객실 안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어 호텔 측의 미움을 샀다. 밤새워 화투판을 벌이고, 합법적 외박이라는 해방감에 취해 고함치고 술판을 벌이는 회원들도 있었다. 결국 경주에서 세미나를 못 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사지인의 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부끄러운 기억이다.

강의 내용은 이 시기에 가장 풍성하였다. 1990년대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 고급인상사진(리터칭)과 웨딩이었다. 1992년 제35회 대회에서 성기영 대전 성사진관 대표의 ‘어린이 인물 촬영’ 강의는 사진인들에게 베이비 시장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94년 차준현 이사의 ‘베이비 촬영 기법’, 신성원 이사의 결혼사진 강의는 강의장 입구가 막힐 정도로 인원이 몰렸다.

1996년 제39회 평창 피닉스파크 대회는 역사적인 대회였다. 협회 강좌 최초로 2개 강의장에서 동시 강의를 진행되었다. 미국 강사 샘영 부부가 참석하여 PPA(미국프로사진가협회)와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부인 신디 영의 ‘칼라 리터칭’ 강의는 국내 사진인들이 전혀 접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다.

1997년 제40회 대회에서는 미국 리터칭 전문가 베로니카 카스가 ‘채색을 이용한 네거티브와 프린트 리터칭’을 강의하였다. 이 시기 리터칭의 열풍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리터칭 작업대·염료·연필·스프레이 코팅 등 관련 기자재 전문 업체가 새로 생겨날 정도였다.

1998년 제41회 대회는 IMF 외환위기의 충격 속에서 열렸다. 예년보다 다소 적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사진저작권과 초상권, 원판 지급 문제가 처음으로 세미나 강좌의 주제가 되었다. 1990년 회보에서 김귀환이 제기한 원판 소유권 문제가 10년 만에 정식 교육 의제가 된 것이다. 1999년 제42회 대회에서는 PPA 방식의 새벽 강의가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대 디지털 변혁의 시대

2000년, 사상 최대인 1,300명이 참가한 제43회 대회. 그러나 이후 참가 인원은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면서 사진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2000년대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단 하나였다.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갑론을박이 강의장을 달궜다. 결국 디지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무너졌다. 반면 초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디지털 장비에 투자한 이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전환한 사진관이 살아남았다.

디지털 강의의 포문은 오종남 교수가 열었다. ‘디지털사진의 이해와 전망’, ‘포토샵과 인상사진’, ‘디지털사진의 제작기법’. 사진계의 포토샵 같증을 풀어준 강의였다. 그 뒤를 이어 정연태 강사가 등장하여 RAW 데이터 활용법을 강의하였다.

2005년 제48회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대회는 강의 8개 중 6개가 디지털 관련 강의였다. 당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를 숫자가 말해준다. 사진관들이 컴퓨터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던 시절이었다. 2007년 김문자 원장이 첫 강의로 나섰다. 1993년 전주에서 엘스튜디오를 시작하여 웨딩엘가 35개점, 베이비엘가 90개점, 일본·중국 진출까지 이뤄낸 인물이었다. 2006년 제49회 대회에서 민의기 강사가 ‘돈 버는 스튜디오 마케팅’을 강의하였다. 1955년 창립 이후 51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마케팅 강의가 등장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사진관 세미나는 ‘기술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 서서히 축을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스마트폰의 시대

2010년대 전반기에는 온라인 마케팅이 세미나의 새 주제로 떠올랐다. 바이럴마케팅, 카페, 블로그, 지식인 광고 등 기존에는 없던 강의가 시작되었다. 남유행 강사의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접목’, 민의기 강사의 ‘카페·블로그·지식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매출 올리기’가 사진인들의 눈을 온라인 세계로 이끌었다. 2012년 제55회 대회에서는 ‘증명사진 전문점’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서비스가 약한 사진관에 고객 서비스 혁신의 충격을 준 강의였는데, 증명사진 시장의 고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사례였다.

2016년 제59회 대회는 강의실이 3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무려 13명의 강사가 동시에 진행하였다. 처음 시도되는 유료 강의도 있었다. 김정대 강사의 ‘인물사진 크로마키 합성’은 3만 원의 유료 강의였는데, 3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유료 강의의 교육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가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동료 수강생들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진지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2017년 제60회 대회는 역대 최다인 22개 강의를 진행되었다. 강의장이 4개로 나뉘었다. 드론, VR, SNS마케팅, 인테리어, 만삭사진, 증명사진, 세무, 사진발명사까지 사진관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2박 3일 안에 담겼다.

2018년 제61회 대회에서는 유튜브 강의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미지를 넘어선 유튜브 시대! 아이패드로 시작하는 모바일 영상 시작’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세미나가 앞서 읽고 있었다. 2019년 제62회 무주 나뭇리조트 대회에서는 펫 포토그래피와 흑백사진 전문점이 새 수익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리고故김영삼 고문의 장남故김현 선생님이 ‘인상사진학개론’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1955년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세미나가 2년간 열리지 못하였다.

2022년 ~ 팬데믹과 인공지능(AI)의 시대

2022년 제63회 여수 디오션리조트 대회는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세미나였다.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저작권,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강의가 새롭게 편성됐다. 드론 실무강의도 처음 도입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3년 제64회 KT대전인재개발원 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챗 GPT 마케팅 활용 강의가 처음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2024년 제65회 용평리조트 대회에서는 이보토 초급·고급 과정을 분리 편성하는 등 수준별 교육이 체계화됐다. 드론교육과 금융설계교육 등 비사진 분야 실용 강의도 처음 도입됐다.

2025년 제66회 대회는 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 열렸다. ‘불황타파’ 시리즈 7개 강의를 집중 편성해 스마트플레이스 상위노출, 챗GPT(ChatGPT) 실전, 인공지능(AI) 사진복원 등 실전 마케팅과 신기술 강의로 회원들의 생존력 강화에 집중했다.



택이네 조개전골에 우수업체 인증서 전달

협회 건물 터주대감, 오랜 신뢰와 헌신에 감사의 전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제40대 회장 이경희는 2026년 5월 28일 협회 건물 1층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세입자 택이네 조개전골 대표에게 우수업체 인증서를 전달했다.

택이네 조개전골은 본 협회 건물에 입주한 이후 단 한 차례의 문제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오며 협회와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특히 이사회, 각종 위원회 회의, 서울지회 세미나를 비롯한 크고 작은 협회 행사에서 식사를 도맡아 제공하며 행사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회의가 길어지는 날에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행사에서도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협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경희 회장은 "오랜 시간 협회와 함께하며 크고 작은 행사마다 식사를 지원해준 택이네 조개전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라고 말했다.



우수협력업체 인증서 전달



편집후기

| 한장훈 홍보위원장

더 좋은 회보를 향해, 역사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매달 20일 원고 마감

2026년 5월 28일, 사진회관에서 편집회의가 열렸다. 회보 발행 일정 점검부터 원고 협조 요청, 페이지 분량 기준 마련, 회보 확장성까지 네 가지 안건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다시 세웠다. 매달 20일 원고 마감, 매달 첫째 주 금요일 편집회의를 한다.

매달 회보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원고 취합을 제외한 필자의 손을 거쳐 수정하는 시간이 꼬박 나흘이다. 넘겨받은 원고를 다듬고, 사진 설명을 붙이고, 직함과 이름을 확인하고, 배열을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문제는 그 나흘의 수고 중 상당 부분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되어 왔다면 줄어들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원고는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회보의 품질은 편집국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고를 보내주시는 각 위원회와 지회·지부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회보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읽히는 것이 목적이다. 더 많은 회원이 읽고, 더 많은 기자재업체가 광고를 내고, 온라인 채널과 연결되어 협회 밖에서도 회보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달의 퀴즈

이번 8월 24일에 열리는 하계 세미나는 몇 번째 개최 일까요?

① 66회 ② 67회 ③ 68회 ④ 69회